

재한일본인의 집거지 공동체 형성과 디아스포라적 문화의 특성 고찰*

임영언(전남대학교)** · 허성태(조선대학교)***

논문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동부이촌동 일대에 일본인집거지가 형성되게 된 배경과 일본인들이 이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을 통해 재한일본인들의 디아스포라적 문화의 특성을 고찰하는데 있다.

먼저 기존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그동안 국내외에서 진행된 재한일본인 연구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재한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그들의 디아스포라적 문화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재한일본인들과의 심층면담 결과 재한일본인공동체는 반일감정에 대한 배타성, 한일역사에 대한 인식부족, 한국문화에 대한 문화적 이질감 등으로 인하여 한국사회와 단절된 일본인 중심의 디아스포라적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밝혀낼 수 있었던 재한일본인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식민지경험과 역사적 인식의 차이 때문에 한국인들이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막연한' 반일감정에 의해 유발된 지나친 자각 의식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막연히 '고안된' 재한일본인공동체의 집단적식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반일감정보다 한국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훨씬 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민족정체성(Ethnic Identity)으로 굳어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한일본인공동체의 폐쇄적이고 고립된 디아스포라적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차이를 초월하는 글로벌한 열린 시각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교류가 전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디아스포라적 특성, 재한일본인, 동부이촌동, 반일감정, 공동체, 한국문화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413-B00009)

**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연구교수(제1저자)

*** 조선대학교 러시아어과 조교수(교신저자)

I. 연구 목적

현재 재한일본인들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부산이나 기타 지역에 소수가 산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주로 한국주재 일본상사의 주재원, 특파원, 일본어 강사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내 재한일본인들은 하나의 공동체(Community)를 형성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 동부이촌동에 3,000여 명이 ‘저팬 타운(Japan Town)’을 형성하여 거주하고 있고, 부산의 경우 남천동에 중점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재한 일제인디아스포라(Nikkeizin Diaspora)의 집거지 공동체 형성은 여타 이주자나 소수민족(Minority)이 정착국가에서 취하는 이주형태와 마찬가지로 일본인 역시 동족끼리의 유대감 유지와 외국인에 대해 상당히 배타적일 것으로 ‘추측되는’ 한국에서 자신들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인집거지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울 개포동에 일본의 소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일본인학교가 개설되어 있다. 이 학교는 일본의 정규교육과정을 그대로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자는 본국에서 상급학교 진학도 가능하다.

한편,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가운데 여성들의 비중이 201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국법무부 출입국관리국과 재한일본대사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10년 10월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영주자는 7,519명, 이 가운데 여성이 6,182명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영주자는 2001년 808명, 2005년 71명, 2006년 1,622명으로 급증하였는데, 이후 매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9년 6,952명, 2010년에는 7,519명으로 증가하였다.¹⁾

또한 일본인 영주자와 3개월 이상 장기체류자를 합한 국내 거주 일본인은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2010, p.265.

http://www.immigration.go.kr/HP/TIMM/imm_06/imm_2010_12.jsp(검색일: 2012. 12. 27).

2003년 19,685명에서 2010년 29,064명으로 7년 사이에 약 6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해외에 거주하는 일제인(재외방인)의 합계는 전세계 약 114만 명으로 전년대비 1.0%증가하였으며, 과거 10년간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통계적 수치는 그만큼 일본인들의 해외진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글로벌시대(Globalization)에 전세계적으로 일본인의 해외거주자 비율이 비교적 낮은 가운데 유독 한국 내 일본인 장기거주자가 꾸준히 증가해 온 가장 큰 이유는 한국남성과 국제 결혼하여 영주하는 일본 여성들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하나는 한국 정부가 2005년 9월부터 외국인 영주조건을 결혼 5년 후에서 2년 후로 대폭 축소시키면서 일본인 영주자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글로벌시대 한일간 국제결혼이 증가한 또 다른 이유는 2004년 이후 일본에서 한류드라마(Korean Wave)가 크게 유행하면서 일본인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상승, 그 가운데서도 한류(Hallyu)를 주도한 배우들이 남성들이어서 한국 남성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김지영, 2009)²⁾.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재한일본인들은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이질감(Cultural Differences), 한국인들의 일본인에 대한 배타성(Exhaustivity), 일본인들의 동류집단화(Kind Consciousness) 등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재한일본인의 증가와 더불어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재한일본인들의 이주실태와 동부이촌동 집거지 공동체의 형성배경을 고찰하고, 한국생활에서 소수자(Minority)로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의 디아스포라적(Diasporic) 문화의 특성을 도출하는데 있다.

2) 김지영(2009) “『조국』 문화로서의 『한류』 재일한국조선인의 『한류』 미디어 접촉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제41집, 2009, pp.197~212.

II. 기존연구의 검토 및 이론적 배경

1. 재한일본인에 대한 기존연구

역사적으로 볼 때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은 유대인(Jewish)과 그리스인(Greek)의 이산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디아스포라의 개념은 코헨(Cohen, 1997)과 샤프란(Safran, 1991) 등의 연구에 의해 ‘초국적 글로벌시대에 특정 국가 내에 상주하는 소수 인종집단’을 특정하게 된다. 오늘날 디아스포라의 개념은 유대인의 역사적 경험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국제이주, 망명, 이주 노동자, 소수민족공동체, 초국가적 민족공동체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동일한 민족적 기원을 가진 해외 이산민족(移散民族)으로서 민족에 대한 귀속의식이나 비슷한 신념체계를 지닌 사람들을 지칭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민족(Ethnicity)이란 한 집단이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성격 및 자아의식, 혹은 민족들 간의 차이를 말한다. 뱅크스(M. Banks, 1996)는 민족에 대하여 본원주의(Primordialism), 도구주의(Instrumentalism) 및 개인범주 등으로 구별하여 사용하였다.³⁾ 이를 좀 더 발전시킨 바스(Fredrick Barth, 1969)는 본원주의와 정황론(Situationalism)을 결합시킨 민족이론에 입각하여 생물학적으로 영속적이며 서로 결부되어 있고, 기본 사회가치들을 공유하며, 내적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동질의식을 느끼며 정보사회와 물질문화의 이동에도 불구하고 집단의 경계가 창조되고 유지되는 양상에 주목하였다. 또한 코헨(Cohen, 1969)은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민족집단이 추구하

3) 뱅크스(Banks, 1969)에 의하면, 본원주의(Primordialism)는 민족정체성을 인류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한 양상으로 인정한다. 민족적 차이는 언제나 존재하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민족적 차이의 기원과 형성을 설명하기보다는 기술하는데 관심을 가진다. 민족정체성은 혈연과 혼인, 그리고 관습과 언어를 공유함으로써 서로 결합되었다는 것이다.

는 사회적 전략을 더 심화시키기 위하여 민족정체성을 재구조화시키는 융통성 있는 요소로 보였다. 즉 민족정체성이 어느 집단의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식민주의와 이후 정치적 독립 등으로 형성된 집단간의 복합적인 경쟁과 차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였다.

위와 같이 역사적인 산물로서 이산자들의 내면적 피해의식에 초점을 맞춘 고전적 의미의 디아스포라 개념은 이주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숙명적 이주자들을 설명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그러나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디아스포라 개념은 초국적 민족이산과 인구의 이동현상을 포괄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한일본인의 디아스포라적 문화의 특성을 혈연적·문화적 동질성을 근거로 하는 민족공동체(Great Ethnic Community), 거주국 내 소수민족그룹(Minority Ethnic Group)으로서의 이주자들의 적응(Adoption)과 차별(Discrimination)의 경험 및 독자적 민족정체성 강조, 그리고 집단적 이산과정에서 경험하는 상흔(Trauma),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에 대한 헌신과 충성(Loyalty), 귀환의식 등으로 개념화하였다.

지금까지 디아스포라로서의 재한일본인에 대한 한국의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인디아스포라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최근에야 송석원(2009), 임영언(2010, 2011) 등에 의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로는 한국 내 다른 이주민들에 비해 소수에 지나지 않아 크게 주목받지 못한 측면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재한일본인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 중 대표적인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해방이전과 해방이후, 그리고 1980년대 이후 글로벌시대 재한일본인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해방이전 재한일본인 연구는 방광석(2010)의 “한국병합 전후 서울의 ‘재한일본인’ 사회와 식민권력”이 있다. 이 연구는 개항기 일본인의 거류지 설치문제에 관하여 후지무라(藤村道生, 1965)와 고병운(1987)의 연구, 사회경제사적 관점

에서 재한일본인 거류지를 파악한 손정목(1982)의 연구, 식민지화기반으로 일본인 거류지를 파악한 이현중(1975)과 카지무라히데키(梶村秀樹, 1992)의 연구, 거류민 자치기구의 양태와 성격을 밝힌 기무라(木村建二, 1989)의 연구 등을 기존연구로 하여 재한일본인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서울의 일본인 거류지를 대상으로 ‘거류지구척’(1887)이 제정되는 초기 조선거류지 사회의 발전양태를 고찰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식민권력과 거류민간의 협력 및 대항 구조를 해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해방이후 국내에 거주하는 재한일본인의 결혼에 관한 연구는 김석란(2007)의 “재한일본인 아내의 결혼동기에 관한 연구”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중심은 해방이전 결혼하여 한국에 이주한 일본인아내, 그리고 1980년대 후반 글로벌시대 결혼하여 이주한 일본인 아내들의 한국인 남성의 선택 동기요인과 선택수용에 대한 주변의를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주요자료는 기존문헌자료와 인터뷰조사자료들로 주로 경주나자레원(한국잔류일본인여성들이 생활하고 있음)이 생산한 문헌자료, 부산부용회(재한일본인여성 중심의 모임) 회원 10명, 부산과 울산에 거주하는 일본인 아내 4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조사자료이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를 보면 재한일본인 아내의 상당수가 특정 종교를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는 국제결혼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글로벌화와 한류의 붐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만나 결합하는 결혼의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이 연구는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해방이후 한국인과의 결혼여성이 잔류일본인여성이나 특정 종교 출신의 일본인여성으로 한정되었지만 글로벌시대 한국의 경제적 위치와 한류붐이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러한 여파가 일본사회에서 일본여성이 한국남성을 선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1980년 글로벌시대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식민지시대와 무관하게 전개된 재한일본인의 연구로는 김유나(1999)의 “재한일본인의 언어생

활”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재한일본인을 장기체류자와 영주권자를 분류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재한일본인의 한국어에 대한 이미지와 언어습득 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언어학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재한일본인의 언어생활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재한일본인은 한국어가 가능하고 학습경험이 풍부하며 언어능력이 높고, 학습기간이 오래될수록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에 대한 이미지도 “경쾌하다”, “좋다”, “부드럽다”, “듣기 쉽다” 등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논문은 재한일본인의 한국어의 이미지를 환기하는데 사회언어학적인 속성요인이 크게 관여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과도 깊은 관련성이 있다.

한국에서의 재한일본인 연구는 해방이전 일본인의 거류지 정착과정, 해방 이후에는 김석란(2007)의 연구와 같이 식민지시대 유산인 재한일본인 여성 연구, 1980년 글로벌시대 이후에는 이덕구(2009)의 이주여성(통일교 관련 연구)에 대한 논문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 또한 한명진(2009)의 “이주민공동체로서의 재한일본인공동체 특성 분석: ‘서울재팬클럽’과 ‘온누리교회 일본어 예배’를 중심으로”의 연구는 최근에 시도된 재한일본인 집거지 공동체 연구로서는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재한일본인에 대한 기존연구의 경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1945년 해방이전 재한일본인 연구는 식민지시대 식민권력과 거류민간의 협력 및 대항 구조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둘째, 1945년 이후 재한일본인 연구의 경향은 경주나자래원과 부산부용회 등 부산과 울산에 거주하는 재한일본인 여성을 대상으로 식민지시대의 연속선상에서 그들의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셋째, 식민지시대의 단절과 글로벌시대의 도래로 나타난 일본인 결혼이주여성(통일교)과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본격적으로 출현하게 된 동부이촌동 일계인타운을 중심으로 한 연구이다.

상술한 기존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는 디아스포라(DIASPORA)

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동안 국내에서 심도 있게 다뤄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재한일본인 공동체의 디아스포라적 문화의 특성을 고찰한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글로벌시대에 역설적으로 한-일 간에 역사적·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적 완충지대(Cultural Buffer Zone)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재한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2. 재한일본인의 이주실태

본 연구는 디아스포라적 시각에서 재한일본인 공동체의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재한일본인의 디아스포라적 특성은 혈연적·문화적 동질성을 근거로 하는 민족공동체(Great Ethnic Community), 거주국 내 소수민족그룹(Minority Ethnic Group)으로 이주자들의 적응(Adoption)과 차별(Discrimination) 경험에 의한 독자적 민족정체성 형성, 집단적 이산과정에서 경험하는 상흔(Trauma) 및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에 대한 헌신과 충성(Loyalty) 등으로 개념화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재한일본인의 디아스포라적 문화의 특성을 동부이촌동 중심의 일본인공동체 형성배경, 서울재팬클럽(SJC)이라는 소수민족 그룹형성 과정, 동부이촌동 재한일본인 집거지 공동체 내 재한일본인의 이주적응과 차별경험과정에 생겨난 공동체 의식형성 차원에서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면 먼저 한국에 체류하는 재한일본인의 실태와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도 말 한국정부의 법무부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정책통계연보에서 발표한 국내 체류외국인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중국이 608,881명으로 4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10.1%, 베트남 8.2%, 일본 3.9%(48,905명), 필리핀이 3.7%, 타이 3.5%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적 수치에

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내체류외국인의 거의 절반 이상이 중국국적자이며 그 중 일본국적자는 3.9%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단위: 명, %)

구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불법체류비율
총계	1,261,415	1,092,900	168,515	13.4%
중국	608,881	532,315	76,566	12.6%
미국	127,140	122,297	4,843	3.8%
베트남	103,306	87,866	15,440	14.9%
일본	48,905	48,206	699	1.4%
필리핀	47,241	35,985	11,256	23.8%
타이	44,250	31,842	12,408	28.0%
인도네시아	31,728	26,982	4,746	15.0%
몽골	29,920	19,037	10,883	36.4%
우즈베키스탄	25,895	20,166	5,729	22.1%
타이완	24,760	23,920	840	3.4%
캐나다	20,435	19,895	540	2.6%
스리랑카	18,377	16,437	1,940	10.6%
방글라데시	12,605	7,098	5,507	43.7%
캄보디아	12,192	11,101	1,091	8.9%
파키스탄	10,319	7,340	2,979	28.9%
네팔	9,834	8,029	1,805	18.4%
러시아	9,767	8,503	1,254	12.8%
오스트레일리아	8,469	8,330	139	1.6%
인도	7,117	5,768	1,349	19.0%
영국	5,458	5,396	62	1.1%
미얀마	4,565	3,281	1,284	28.1%
홍콩	3,742	3,529	213	5.7%
기타	46,509	39,567	6,942	14.9%

한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의 합법적인 체류 이외에도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국적별 체류외국인의 불법체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법 체류외국인의 국적은 방글라데시가 4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몽골이 36.4%, 파키스탄 28.9%, 미얀마 28.1%, 타이 28.0% 순으로 나타났으

며 일본은 1.4%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재한일본인중 불법체류자가 적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일본이 경제선진국으로서 한국에 체류하는 일본인들이 이주노동자보다는 주로 일본기업의 상사, 주재원, 공무원 등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한국체류가 길어지면 일반적으로 그들 신분을 전환하여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표 2>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연도별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10년도 체류외국인은 전체 약 126만 명으로 해마다 전체적으로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도별 체류외국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로 모국어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등 영어권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어학분야의 전문인력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주노동자들의 불법체류자 비율이 높은 방글라데시, 몽골, 타이 등은 국내체류자 비율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내체류자가 2008년도 1만 명 가량 증가하다가 2009년도 감소추세에서였으며 최근에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표 2> 재한일본인 연도별 현황(단위: 명, %)⁴⁾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계	910,149	1,066,273	1,158,866	1,168,477	1,261,415
중국	382,237	503,427	556,517	555,082	608,881
미국	108,091	112,268	117,986	122,659	127,140
베트남	54,698	71,074	84,763	90,931	103,306
일본	43,207	41,053	51,763	47,718	48,905
필리핀	48,164	50,873	46,894	45,913	47,241
타이	43,307	47,813	45,198	44,701	44,250
인도네시아	26,378	26,522	29,913	29,859	31,728
몽골	28,392	32,463	32,206	30,674	29,920
우즈베키스탄	15,380	17,163	21,569	21,249	25,895

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2010. p.273.

타이완	25,864	27,040	26,977	27,062	24,760
캐나다	14,879	16,562	17,752	19,393	20,435
스리랑카	12,594	13,498	15,717	15,506	18,377
방글라데시	14,649	13,082	12,165	10,863	12,605
캄보디아	3,652	4,838	7,578	9,204	12,192
파키스탄	11,204	10,239	10,068	9,820	10,319
네팔	5,644	5,357	6,737	8,164	9,834
러시아	10,534	9,632	9,207	9,622	9,767
오스트레일리아	5,943	6,671	6,971	7,446	8,469
인도	6,646	7,095	6,732	6,364	7,117
영국	4,075	4,411	4,696	5,024	5,458
미얀마	4,484	4,137	3,730	4,555	4,565
홍콩	3,327	3,287	3,987	4,518	3,742
기타	36,800	37,768	39,740	42,150	46,509

재한일본인만의 성별 및 체류자격을 살펴보면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재한일본인의 성별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37.8%, 여성이 62.2%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 간의 결혼이 많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일본으로부터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관광통과는 5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대사관 직원이나 주재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3> 재한일본인 성별 및 체류자격 현황⁵⁾

국적	총계	성별	외교	공무	협정	사증면제	관광통과	일시취재
일본	48,905	남성:18,475 (37.8%)	59	36	13	2	12,469	1
		여성:30,430 (62.2%)	56	27	74	1	16,129	1

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2010. p.274.

다음은 재한일본인의 체류자격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재한일본인의 체류자격을 보면 남성의 경우 주로 무역, 교수, 연구, 특정활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성의 경우 영주, 거주, 동반, 관광취업, 제외동포, 방문동거, 회화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재한일본인을 통계적인 수치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이 전문직 종사자와 그들의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재한일본인의 체류자격별 현황⁶⁾

국가	성별	무역경영	교수	회화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홍행
일본	남성	59	147	104	335	5	5	24
	여성	0	77	258	11	0	0	8

국가	성별	특정 활동	방문동거	거주	동반	제외동포	영주	기타	관광 취업
일본	남성	430	432	570	450	138	416	8	52
	여성	96	505	4,499	1,122	363	5,232	5	38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은 주로 방문취업제 및 관광목적, 재한일본인은 회사의 주재원으로서 영주나 거주, 동반, 관광객, 필리핀과 타이 등은 고용허가제 및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외국인 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3. 디아스포라적 문화의 특성

지금까지 재한일본인의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

6)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2010. p.276.

데 다음은 재한일본인들의 1965년 전후 이주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1965년 이전 재한일본인

1965년 이전부터 한국에서 거주해 온 일본인(여성)들은 한일국교정상화 이후에 약 4,000명으로 감소하였으며 현재 약 1,000명이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주를 비롯한 한국 시골에는 지금까지도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생활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대개 1945년 해방이전부터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기체류 일본인들로서 현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⁷⁾. 이들 대부분은 1920년~23년 출신이 가장 많고 평균연령은 80대 후반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이 시기에 재한일본인들은 주로 일본인 여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일본인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972년에 고 김용성 씨가 설립한 ‘경주 나자레원’이 대표적인 재한일본인 여성 전용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설은 일본인여성들의 귀국지원이나 의지할 곳 없는 일본인여성들을 위한 생활서포트, 즉 한국의 양로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9년 3월까지 이곳에서 생활하던 일본인여성 가운데 본국희망자 147명이 영주귀국을 지원했으며⁹⁾ 현재는 일본인여성 23명(평균나이 87세)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나자레원에서 생활하는 일본인여성들은 주로 일본어로 소통하고, 일본 TV시청, 일본전통노래와 춤을 배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 시설은 일본인여성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일본현지에서 신원 보증인의 부재로 이미 일본으로 귀국하는 것을 포기하여 한국에서 평생 살기를 결심한 일본인여성들의 정신적인 공동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7) 金春男, “文化的背景に配慮した在韓・在日外国人高齢者の老後生活の支援：在韓日本人と在日コリアンのための老人ホームをとおして.” 『社會問題研究』 59卷, 2010, p.44.
 8) 伊藤考司, 『日本人花嫁の戦後 韓国・ナザレ園からの証言』, LYU工房, 1996, p.187.
 9) 宋美虎, 喜田寛, 『ナザレ園-金龍成先生との約束』, 株式会社喜田寛 総合研究所, 1994, pp.114~125.

재한일본인 여성들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의 국적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들의 국적 구성을 보면 일본국적유지, 한국국적취득자뿐만 아니라 복수(이중)국적, 무국적자도 존재한다. 재한일본인여성을 연구한 김응렬(1983)의 연구에서는 이들 여성들이 다양한 국적을 소유한 배경에 대하여 일본국적자와 이중국적자는 한국인 남편과 가족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를 못했거나 일부러 결혼신고를 안 한 사람들이고, 한국국적자는 한국인 남편과의 결혼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일본국적을 상실한 사람들 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인여성들의 결혼 형태도 다양화되어 내선결혼, 연애결혼, 조선인 남성의 현실 생활 극복 차원의 결혼, 일본인 여성의 현실 생활극복 차원의 결혼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의 결혼의 형태가 이후에 한국생활이나 일생에 미친 영향은 말할 나위도 없다.

<표 5> 한국 생활 중의 어려웠던 점 (%)¹⁰⁾

어려웠던 점	(%)
언어가 통하지 않았던 점	93.1
경제생활이 곤란했던 점	85.1
편견이나 차별을 받았던 점	45.5
남편의 여성 문제	25.7
남편의 실업 문제	17.8
한국전쟁	16.8
생활 관습의 차이	14.9
노숙 생활할 때	6.9
자녀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6.9

기존연구에 따르면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일본인여성들이 한국생활 속에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을 질문한 결과, 첫 번째가 언어적인 것(93.1%)과 경제적인 것(85.1%), 그 다음으로 사회적 편견이나 일본인 차별(45.5%) 등으

10)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에 관하여-‘재한 일본인妻’ 문제를 중심으로”, 2008, p.2.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lrguswkdrns&logNo=20052229670>(검색일: 2012. 07. 20).

로 나타났다. 일본인여성들의 언어 문제는 해방 전에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결혼한 경우에는 한국어를 생활 언어로 사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다소 나은 편이지만, 일본에서 결혼 후 도한(渡韓)한 일본인들은 한국어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¹¹⁾

또한 재한일본인여성들은 기존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여성들이 많았다. 따라서 이들 여성들은 한국에서 오래 살았는데도 한국어 독해, 한글쓰기조차도 어려워하는 일본인들이 많았다고 한다. 가까운 이웃나라이지만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이국에서 말이 통하지 않다는 것은 바로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연결되기 쉽기 때문에 언어소통의 능력이 한국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떠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 재한일본인여성들은 하류층(빈곤층 포함)에 속하는 비율이 67.3%로 가장 많았으며, 중류층 28%, 상류층이 4.7%¹²⁾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짐작된다.

경주나자레원의 송미호 원장에 따르면 현재 “이곳에는 약 1,000명 정도의 재한일본인여성 고령자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 중 300명에서 800명 정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생활고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경주나자레원’에 직접적인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재한일본인여성 고령자는 약 200명 정도이다.”라고 하였다.¹³⁾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여성단체로서는 ‘부용회’가 있다.¹⁴⁾ 부용회

11) 金春男, “文化的背景に配慮した在韓・在日外国人高齢者の老後生活の支援: 在韓日本人と在日コリアンのための老人ホームをとおして.” 『社會問題研究』 59卷、2010、p.45.
 12)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에 관하여-‘재한 일본인妻’ 문제를 중심으로”, 2008, p.2.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rlguswkdrns&logNo=20052229670>(검색일: 2012. 07. 20).
 13) 제2차세계대전 중 한국청년이 일본으로 징용이나 취업 또는 유학으로 넘어가 일본현지에서 일본인과 결혼하여 해방 후 남편을 따라 한국에 넘어와 생활하게 되었지만 남편에게 전처가 있거나 문중의 반대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홀몸이 되었거나 6·25한국전쟁을 통해 남편을 잃고 혼자서 홀몸으로 생활을 하였지만 젊었을 때에는 무슨 일이든지 해서 생활이 가능하였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 일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중풍 등 질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일개노인 분들의 보호, 요양, 거택원조, 생활상담 등의 목적으로 1965년에 설립되었음.
 14) 국내 대규모 결혼이주 여성의 원조는 ‘부용회(芙蓉會)’ 할머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한국으로 건너왔거나 광복 이후 한국인 남편을 따라 바다를 건너온 일본인

는 서울과 부산에 각각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서울부용회의 경우 회원수는 363명이며 부산부용회의 회원수는 253명 정도이다. 부용회의 회원자격과 목적은 서울부용회의 경우, ‘개인, 한국거주의 일본인부인 및 혼인에 의하여 한국국적이 되기 전 일본부인’, ‘회원 상호의 친목과 곤궁한 방인(邦人) 및 일계인부인의 원호’이며 부산부용회의 경우, ‘개인’, ‘회원의 교양친목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한일친선에 기여’로 설정되어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부용회 회원 대부분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 일본영토에 강제로 편입된 한국남성과 결혼한 일본인여성들로 현재 평균연령이 70세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는 일계인 단체와 달리 부용회는 식민지 출신이라는 공동체의 성격상 존속과 유지를 위해 일본인 2세~3세로 세대교체를 하려는 의지가 없어 회원의 고령화와 함께 자연 소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1965년 이후 재한일본인

한국법무부와 재한일본대사관 통계에 따르면 2010년 10월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영주자는 7,519명, 이 가운데 여성이 6,182명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영주자는 2001년 808명, 2005년 71명, 2006년 1,622명으로 급증, 이후 매년 증가해 2009년 6,952명 2010년에는 7,519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일본인 영주자와 3개월 이상 장기체류자를 합한 한국거주 재한일본인은 2003년 19,685명에서 2010년 29,064명으로 7년 사이에 약 6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일본인들이 급증하게 된 이유는 한국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지위향상과 일본에서 2004년부터 일기 시작한 ‘한류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한일본인 중에 여성이주자가 많은 것은 한국인남성의 국제적인 지위향상에 따른 한일국제결혼 커플의 증가, 한류붐의 주요 팬이

여성들 가운데 귀국하지 않고 한국에 머문 재한일본인부인회 모임이 부용회다. 서울과 부산 중심의 일본인여성조직으로 1964년 설립된 부용회 부산본부에는 현재 20여 명이 가입해 있다고 함.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통일교를 통한 국제결혼이 기본적으로 한국인남성과 일본인여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덕구(2009)의 연구에 의하면 1965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본인의 한국 이주는 특정종교, 특히 통일교의 국제결혼을 통한 유입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통일교 내에서는 1962년부터 국제간의 남녀결합이 이루어져 왔지만, 1975년부터 정식으로 한일결합이 성사되기 시작하였다. 1988년에서 1992년 사이에는 무려 약 600쌍에 이르는 한일남녀가 통일교를 통하여 국제결혼을 하였다. 통일교의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후 1993년부터 1995년까지는 약 2,000쌍, 1996년부터 1998년까지는 약 3,350쌍, 2004년에는 약 1,600쌍에 달하는 한일의 남녀가 결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일교에서는 한국인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결합을 권장하고 있어 통일교를 통하여 이루어진 한일커플 중 일본인남성과 한국인여성 커플은 드문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동부이촌동 현지조사에서 밝혀진 것이지만 1980년 글로벌시대 이후 한국인과 일본인간의 연애결혼의 경우 한국과 일본현지에서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제3국의 영어권에서 만나 결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나 유럽 등지에서 생활하는 경우 이들은 같은 아시아권 출신의 민족이라는 점에서 한일양국의 이주자들은 제3국에서 백인이나 흑인보다 동양인에 더 친근감을 느낀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현상이 만들어 낸 결과가 한일양국의 국제결혼을 증가시킨 경우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가끔 한류붐의 영향으로 한국인 남성들은 일본인남성들보다 직설적이고 열정적이라는 점에서 일본인여성들이 선호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3) 재한일본인 집거지-서울동부이촌동

재한일본인들의 디아스포라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서울동부이촌동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1945년 해방 이후 재한일본인의 대표적인 집거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동부이촌동의 ‘리틀도쿄’, ‘일본인마을’을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945년 해방이 되자 거의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귀국했지만 현지 생활사정 상 한국인 남편을 둔 일본인 아내들은 한국에 잔류하게 되었다. 그리고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에는 한일간 기업과 민간교류가 점차 활성화되면서 일본인이주민과 관광객의 형태로 일본인들이 도한하기 시작하였다. 이 가운데 특히 서울용신구 동부이촌동 일대는 1970년대 외국인 아파트가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일본인이주자들이 모여들어 집거지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일본인들이 이곳에 집거지를 이루면서 동부 이촌동은 미국의 LA 일본인타운과 같이 ‘리틀도쿄’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이 지역은 2006년도 까지만 해도 1,324명의 일본인들이 집거지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일본회사의 상사 주재원, 대사관 직원과 그 가족들이었다.

<그림 1> 동부이촌동 일본인집거지 일본인 식당 및 상점 배치도¹⁵⁾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지역에 일본인들이 집거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점, 은행, 병원, 미용실, 부동산 세탁소 등 일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15)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ug486&logNo=98843670> 참조(검색일: 2012. 6. 30).

또한 일본인들이 이 지역에 증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러한 일상생활의 편의시설의 증가와 더불어 일본인간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한국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나 취미생활, 친목과 교류 등을 도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들 대부분은 주로 남편의 직장 때문에 거주나 영주, 동반 등의 목적으로 가족단위로 이주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디아스포라집단의 이주동기나 목적과는 완전히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나중에 이들 중에는 한국인과 결혼한 일본인도 생겨나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 동부이촌동의 일본인마을의 집거지를 중심으로 일본인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1990년대 이후 한국의 글로벌화와 다문화시대의 영향을 받아 재한일본인들도 네트워크구축과 더불어 일본인공동체나 단체들도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재한일본인공동체의 대표적인 단체는 서울재팬클럽(SJC), 일본인교회, 일본인학교 등 그밖에도 많은 소규모단체나 일본인공동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 재한일본인 민족공동체 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서울재팬클럽(SJC)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 재한일본인 대표적인 단체-서울재팬클럽(Seoul Japan Club)

먼저 재한일본인의 디아스포라적 특성은 혈연적·문화적 동질성을 근거로 하는 민족공동체(Great Ethnic Community)형성이라 할 수 있다. 재한일본인의 대표적인 민족공동체라 할 수 있는 서울재팬클럽(SJC)은 주로 일본대사관 직원, 일본기업관련 주재원 등의 회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내 최대 재한일본인공동체로서 일본인 상호간 친목교류와 한국사회공헌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2011년 현재 이사장은 한국미쓰비시상사 대표 아와야 쓰토무씨이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대사관 및 일본관련 대기업의 주요 임원으로 일본기업과 임직원들만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1997년에는 1월에는 서울 일본인회, 서울 상공회, JV(조인트벤처)회 등 3개의 단체가 연합하여 서울재팬클럽(SJC)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다.

현재 회원은 법인회원이 약 360명, 개인회원이 약 1,66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규모 재한일본인단체이다¹⁶⁾. 이 단체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회원의 계발 및 복지향상, 한일양국민의 친선 기여와 한국사회 공헌, 한일양국의 경제관계의 원활한 발전과 촉진 등이다.

서울재팬클럽(SJC) 회원자격은 법인회원의 경우 일본 법인이 국내에 설립한 현지법인(일본회사법 상장회사 관련 회사 등), 지점영업소 또는 사무소, 일본법인과 공동 투자 및 기술 제휴 관계를 맺고 동시에 일본 법인으로 부터 파견된 일본인이 상주하는 한국법인으로 되어 있다. 이 단체의 법인 창조회원 으로서는 이 클럽의 목적에 동의하며 각종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으로 법인회원 또는 법인창조회원 2사 이상의 추천을 받은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회원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와 근교에 거주하며 일본국적의 사람으로 체류계를 재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 제출한 18세 이상의 일본인, 개인창조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각종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개인 회원, 또는 개인창조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서울재팬클럽(SJC)의 주목할 만한 민족공동체의 활동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많은 일본계 법인단체들이 영리활동을 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에게 정책제안이나 대안을 요구하는 압력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한국진출 일본기업의 경영지도나 기술협력 등을 통해 일본기업의 한국에서의 이익 최대화, 일본기업의 해고요건 완화 및 외국인 투자의 지원요청 등 로비활동과 이익대변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그밖에도 한국진출 일본기업의 경영정책 지원활동이나 경제정책의 조언, 한일국제행사의 후원, 봉사활동, 일본인 개인의 한국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기위한 한국생활 서포트 등 재한일본인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6) http://www.sjchp.co.kr/files/SJCsummary_korean.pdf 참조(검색일 : 2012. 08. 26).

<표 6> 서울재팬클럽(SJC)의 주된 활동¹⁷⁾

주요 목적	활동내용
일본인학교 운영	주재원 자녀의 교육지원 · 학력향상을 위해 서울일본인학교설립, 운영
긴급연락체제의 정비	제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의 지원,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회원간의 긴급연락체제정비
비즈니스 환경개선 건의	일본계기업으로서의 장점뿐만 아니라, 한국 비즈니스 환경의 글로벌화를 위한 경제정책이나 제안활동
일한교류 협력지원	일한교류, 국제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도모, 일한교류축제나 서울 마츠리 등 참가 및 협력지원
기타 봉사활동	복지시설 방문 및 기부활동

SJC의 주된 활동을 살펴보면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인학교 운영, 긴급연락체제, 비즈니스 환경개선 건의, 한일협력지원, 봉사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인 주재원 자녀의 교육지원과 학력향상을 위해 일본인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간의 긴급연락체제정비, 기업의 정책제안활동, 한일교류축제나 축제, 복지시설의 방문이나 기부활동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SJC는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일경제발전을 위한 각종 세미나 및 연구회 활동도 활발히 개최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을 몇 가지 소개하면 정보교환 및 간담회 개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원 및 인사초청 교류 환영회, 한일 축제한마당, 한국정부에 건의사항제출, 한일기업 시찰연수 기획실시 등 한국에서 기업경영에 필요한 정보교환, 사업추진상의 애로사항 해결과 정책제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SJC는 기업이외에도 일본인 개인의 한국생활지원이나 정착을 돕기 위해 취미생활과 동호회도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17) http://www.sjchp.co.kr/files/SJCsummary_korean.pdf. (검색일: 2012.06.20) 서울재팬클럽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필자작성.

<표 7> 한일경제발전 활동

주요 목적	활동내용
정보교환 및 간담	분야별위원회 (상사, 금융, 운수서비스, 전자, 전기, 화학, 생활 관련)에서 정기적 정보교환, 연수, 시찰, 간담회 등
세미나, 연구회	세미나, 연구회 개최 2010년도 실적, 경영 6회, 노동 2회, 세무 2회, 지적재산 3회 등
한국정부에 건의사항 제출	매년, 각 전문위원 (산업정책, 경영, 세무, 노동, 지적재산, 활동기획 중심으로 한국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수집하여 사업추진상의 애로사항해결 등을 목적으로 정책 제언
시찰 연수기획 실시	일한기업, 산업단지 등 시찰 2010년도 실적 상기 포항 (POSCO), 울산 (현대자동차) 등 하기 광주 (광기술원 · 삼성전자) 등
각종 자료제공	SJC매니지먼트뉴스 (경영위원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노동 · 노무 (노동위원회) 기타 조사자료 등 작성 제공

<표 8>의 한국생활 서포트 지원활동을 살펴보면 여행 및 산업시찰, 부인 회활동, 한글강좌, 각종 세미나개최, 도서 및 DVD대여, 클럽활동, 문화행사 및 스포츠대회 개최 등 일본인들이 한국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문화서포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SJC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대거 이주하기 시작하여 동부이촌동지역에 집거하기 시작하자 1972년부터 일본인 학교¹⁸⁾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는 일본 기업의 상사, 은행, 보도기관, 대사관 등에 근무하는 일본인 주재원들의 자녀들이 입학하고 있어 이들이 쉽게 한국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18) 서울일본인학교는 1972년 5월 8일 법적지위 사립각종학교로 인가되어 서울 개포동에 설립되었다. 일본 소학교, 중학교 과정과 동등한 과정을 가진 재외교육시설로서 일본문부과학성에 의해 인정받았으며 한국 문교부와 외무부에 의해 사립각종학교로 허가되었다. 유치부, 소학부, 중학부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 대부분은 일본 상사, 은행, 보도기관, 대사관 근무자의 자녀들이다.

<표 8> 한국생활 서포트 활동

주요 목적	활동내용
여행 및 시찰	2010년도 실적 · 명승탐방 · 봄 남이섬 (겨울소나타 촬영지), 가을 수원 (화성행궁) · 역사탐방 (일한역사의 연고지 탐방)
부인회	여성개인회원의 다양한 활동 · 각종 세미나 · 친목교류회 · 버스투어 · 망년회, 신년회 등
한글강좌	초급에서 중급까지의 5단계 교육 실시
각종 세미나	한국문화, 예능, 역사건강에서 정치경제 등 다양한 테마의 세미나 개최
도서, DVD대여	회원기증 도서 및 DVD 대여
클럽활동	바둑, 하이쿠, 브릿지, 여성 코러스, 남성코러스, 매듭, 여성 골프, 테니스, 축구, 야구, 낚시 등
문화행사 및 스포츠대회	2010년도실적 1월-2월 스키투어 5월 골프대회 소프트볼대회 9월 테니스대회 10월 골프대회, 가라오케대회 12월 크리스마스 찰리티 콘서트

SJC는 한국 속에 작은 일본을 뜻하는 ‘리틀도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일본인들의 한국생활 전반에 미친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인들의 원활한 한국 적응과 문화활동을 서포트하기 위해 한일관계의 이해를 위한 세미나와 연구회 개최, 한일공동 친목교류의 행사개최, 한국어 강좌, 일본인의 여가활동을 위한 각종 행사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SJC광장을 통해 회보발행, 생활의 화제, 한국 생활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으며 ‘한국정보’란에는 한국의 기본정보, 교통안내,

역사문화, 정치경제, 관광여행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1> 서울개포동 일본인 학교
(연구자 현지촬영)



<사진 2>서울일본인교회
(연구자 현지촬영)

III. 재한일본인의 디아스포라적 문화특성 심층 분석

1. 재한일본인 심층면접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에 일본인들이 본격적으로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부터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에 거주하는 재한일본인은 크게 두 부류로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첫째는 1945년 이전부터 한국에 거주하기 시작한 일본인이고, 둘째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도한한 일본인들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와 응답자들은 1965년 이후 한국에 건너와 생활하기 시작한 재한일본인들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한일본인들의 디아스포라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표 9>과 같이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심층면접의 분석자료는 2012년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약 일주일간 동부이촌동지역을 중심으로 일제인접거지를 방문하여 일대일로 실시한 심층면접 조

사자료에 의거하고 있다. 심층면접 조사대상자는 동부이촌동 주변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제한일본인들이다.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심층면접에 응한 제한일본인의 인구통계학적 환경요인을 살펴보면 20대에서 60대까지 한국 체류기간이 짧게는 1년에서 많게는 30년 이상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응답자의 성별로는 남성이 6명, 여성이 5명이었다. 이들의 직업별 분포로서는 회사원, 식당종업원, 요리사, 판매점원, 대학원생, 교회목사, 기업가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층면접조사를 위한 소요시간은 각 개인당 30분에서 1시간정도였다. 인터뷰내용은 면접자와의 사전 동의하에 녹음을 실시하고 나중에 채록 작업을 실시하였다.

<표 9> 일본인집거지 거주 심층면접 대상(2012.02.27~03.04. 서울동부이촌동)¹⁹⁾

심층면접 대상자	나이	성별	주요사항
이치가와 씨	20대	여성	한국거주 3년째 한국에서 직장생활
미타니 씨	60대	남성	일식당 스즈란테이 운영
하치야 씨	40대	여성	일본인 운영 모노마트(일본식품판매점) 직원
우스야 씨	40대	여성	일본인 운영 모노마트(일본식품판매점) 직원
다나카 씨	40대	여성	일본인 운영 모노마트(일본식품판매점) 직원
고스케 씨	20대	여성	○○대학교 석사과정 졸업생
유야마 씨	30대	남성	○○대학교 박사과정 재학생
미와 씨	60대	남성	제한일본인교회목사
타쿠노 씨	30대	남성	고베 겐베이 일식집 요리사
요시다 씨	60대	남성	서울일본인교회 목사
사이토 씨	30대	남성	일본인 경영 회사원
대면접촉에 의한 심층면접조사(총 11명)			

19) 여기에 소개한 심층면접대상자는 2012년 2월 27일부터 일주간 동부이촌동 지역을 중심으로 인터뷰에 응한 제한일본인들로 개인정보관계상 성씨만을 표시하였으며 이름은 생략하였음.

일반적으로 국내 거주 재한일본인은 경험적 연구조사결과 일본기업의 상사 근무, 특파원, 주재원, 일어 강사 등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한일본인들은 주로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서울동부이촌동에 3,000여 명이 거주하여 ‘저편 타운’을 형성하고 있고, 부산의 경우 남천동 일대에 중점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것은 어느 소수민족이나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동족끼리의 유대감 유지와 일본인에 대해 배타적인 한국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심층면접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에 기초하여 일본인의 한국에서의 생활과 디아스포라적 특성에 대하여 김석란(2007), 한명진(2009)의 연구에서 재한 일본인들은 한국에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이질감, 한국인들의 일본인 배타의식, 일본인들의 동류집단화 등이 연결되어 한국 사회에 적응이 더디는 부정적인 경향들이 강한 사례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더불어 전술한 이주적응과 차별경험을 토대로 이 논문은 한국 생활에서의 반일감정에 대한 두려움, 한일역사에 대한 인식부족, 이문화적 요인의 강조로 한국사회로부터 단절된 일본인 중심의 공동체 생활 등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적 특성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동부이촌동 지역은 1970년대 초 박정희 정권이 외국인을 일단 모아서 거주하게 하려는 의도하에 만들어진 집거지라고 할 수 있다.²⁰⁾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외국인 거주정책에 따라 이곳에 일본인들이 많이 모여들었지만 최근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곳에 점점 한국인들은 많이 들어오면서 반대로 일본인들은 감소하고 거주자들의 국적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주재원으로 와 있던 일본인들이 회사에서 가까운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굳이

20) 40년 넘는 동부이촌동의 일본인 마을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국에 중장기적으로 머무는 일본인들을 위해 정부가 한강변에 위치하여 환경이 쾌적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외국인을 위한 고급주택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 들어 집단으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말 현재 1,324명의 일본인이 한가람 아파트 등 이 주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대다수가 상사 주재원, 대사관 직원과 그 가족들이다.

임대료가 비싼 동부이촌동에 거주할 필요가 없어졌다. 일본인들이 여기에 집거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자녀들의 학교문제인데 이것도 학교가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이촌동 이외 지역에 살아도 큰 불편이 없게 되었다. 최근에는 주거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동부이촌동에 살아야 할 이유는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전술한 바와 같이 재한일본인의 한국생활에서의 반일감정에 대한 두려움, 한일역사에 대한 무지, 한국문화에 대한 편견과 오해 등에 대해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반일감정에 의한 배타성

먼저 한국에 거주하는 재한일본인들의 사례연구를 통해 일본인의 이주적응과 차별경험 과정에서 디아스포라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언제 귀계 될 지도 모를 한국에서의 막연한 반일감정에 대한 두려움 속에 생활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코헨(Cohen, 1997)과 사프란(Safran 1991)이 강조하는 디아스포라적 특성인 혈연, 민족정체성, 이산의 트라우마(Trauma) 중에서 역사성에 기인하는 트라우마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대 남성 G씨)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좋게 봐주는 한국인도 물론 있지만 안 좋은 감정과 선입견을 갖고 보는 한국인들이 많다. 특히 일제강점기 식민지 역사의 배경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지만, 일본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대개는 경제대국으로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는 면에서 일본을 대단하다거나 존경을 표하는데, 역사적으로는 매우 슬픈 기억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60대 남성 M씨)

“한국에 생활하면서 일본인이라는 것을 숨기지는 않지만, 일본어로 이야기

하는 것을 꺼려하고,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들키지 않도록 될 수 있는 한 조용히 살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인의 일본인에 대한 막연한 반일감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한국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면서 특히 한국에서 8월 15일 광복절이나 3월 1일의 삼일절 때는 외출을 삼가하고 조용히 살고 있다.

또한 한국인친구에게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상대방의 태도,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지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어르신들은 옛날부터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징용이나 징병으로 강제연행 되어 쓰러린 경험을 당한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이 내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채면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반일감정 그것은 항상 있는 언제 부닥칠지 모르는 일상적인 일이다. 한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노골적으로 일본인들에게 표출하지는 않지만 반일감정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한번이라도 일본에 가서 일본 생활, 일본의 환경 속에서 3~5년 생활해 본 한국인들은 약간 다를지 모르지만 이러한 반일감정은 한국인 2세대~3세대가 지나야 누그러지지 지금 세대는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가끔 한국인들이 지나가는 일본인들에게 위안부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사람도 드물고 광복절이나 삼일절에도 표면적으로는 그런 불미스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언제 분출할지 모르는 반일감정에 대해 늘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3. 한일역사 의식부족과 정치적 민감성

재한일본인의 디아스포라적 특성을 강조하는 두 번째 요인으로서는 한일 역사와 정치적 민감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재한일본인의 일제강점

기에 대한 역사인식 부족이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위안부문제, 독도영유권 문제 등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그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는 디아스포라적 특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디아스포라의 고전적 의미에서 강조하는 그들만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사례분석에서는 대개 한국에서 장기체류하고 있는 재한일본인들의 경우로 한국과의 공생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60대 남성 Y씨)

“일본의 학교 교육에서는 일제강점기나 아시아의 침략의 역사에 대해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일본문부성에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일본이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갈수록 일본에게 불리해지는 것 같다. 가령 일제강점기 1919년 수원의 제암리교회에서 29명의 크리스천들이 일본군대에 의해 일시에 학살당하고 교회가 불태워진 사건 등 한국과 일본 사이의 과거 식민지 역사를 공부하고 한국에 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국제결혼을 한 사람의 경우 한류붐으로 한국이 좋아져서 한국인과 결혼을 하는데, 역사를 잘 모르고 결혼하니까 한국의 부모형제, 친척들과 접촉하면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일본으로 귀국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일본인들이 한국에 올 때는 반드시 일본과 한국 사이의 숨겨진 역사를 배우고 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일본인이 택시를 타면 두 가지 종류의 운전사가 있는데 일본을 잘 아는 사람을 친일파라고 부르는 사람과 식민지시대 한국에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현재 일본이 부자나라이니까 요금을 더 많이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한일간 정치적으로 가장 예민한 문제는 독도영유권문제, 일본 교과서문제, 위안부문제,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일본 정치가나 관료들의 정치적 발언들로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에게 바로 직결되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40대 여성 H씨)

“언젠가 일본 고등학생들에게 역사유적지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인으로부터 더 자세히 설명하라는 잔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한일관계는 한류붐만 보고 이미 표면적으로 용서를 받았다거나 화해가 되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많다. 어떻게 보면 한국사회의 반일감정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독도문제나 위안부문제처럼 오히려 한일간 더 심각해진 문제도 있다.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이 위안부 동상을 세워야만 했던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제 몇 명 남아 있지 않은 위안부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면 이 문제는 일본정부에게 영원한 수치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 전후배상문제에 있어서도 독일과 달리 청산이 안 된 문제가 아직도 산재한다. 한국의 독립기념관 같은 것은 일본인들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린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역사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특히 독립기념관은 너무 심하다(오버한다)고 생각하는 일본인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줌으로서 역사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4. 문화적 차이 강조와 공동체생활

코헨(Cohen, 1997)과 사프란(Safran, 1991)은 디아스포라적 문화로서 혈연적·문화적 동질성을 근거로 하는 민족공동체(Great Ethnic Community)의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재한일본인들에 대하여 디아스포라 문화의 특징적인 측면에서 사례들을 관찰한 결과, 일본인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질적 시각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최근 한류붐에 의한 긍정적인 시각, 둘째는 일제강점기의 연장선상에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덜 문명화된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셋째는 한일 이문화적 요소와 문화적 차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40대 여성 D씨)

“한국인의 생활문화는 전반적으로 밝은 문화인 것 같다. 한국에 시집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한류음악이나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이해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일본에 있는 부모나 친구들도 한류 드라마의 영향과 한류붐을 통해 한국이나 한국인이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했다. 한일커플로 결혼한 내 입장으로서 아주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기분이어서 매우 좋다. 한국의 문화는 전체적으로 밝다고 생각한다. 인상이 아주 밝다. K-POP도 젊음이 느껴지고 춤도 열정적이고, 외모도 신경을 많이 쓰고, 그리고 한복을 보더라도 전통문화적인 것은 색감이 아주 화려하고, 대체적으로 아주 밝은 문화인 것 같다. 조용하고 좀 어두운 이미지가 강한 일본의 전통문화와는 아주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60대 남성 M씨)

“한국에서 음식문화는 식당에 가면 한 사람이 한턱 쏘는 문화다. 일본은 따로따로 계산하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데, 이런 것은 참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여 일본에 가면 가끔 서 먹기도 한다. 한국은 부모형제 사이의 접촉이 많다. 지금은 옛날처럼 활발하지는 않지만, 설날이라든가 추석 때 한국에서는 반드시 친인척간 상호 방문을 한다. 참 좋은 문화라고 생각해서 일본에 가면 반드시 친척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런 일은 일본에 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에 오고 나서 한국문화에 영향을 받아 그런 것을 의식하게 되었다. 한국인들은 가까운 친구나 친척에게 편지를 쓰거나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주 강하다. 일본에서는 형제끼리도 따로 살고 친구도 마찬가지로 서로 무관심 측면이 강하다.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사생활이 철저히 보호되고 서로 간섭하기 싫어하는 문화로 일본 도시락의 반찬처럼 따로따로 생각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한국인의 인간관계는 나쁘게 말하면 인간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귀찮아질 때도 있는데, 다 같은 가족이라는 개념이 강한 문화적 차이가 있다.

일본에서는 가족이 들이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가족과 친척이 많아 그런 것 때문에 한국에서 살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싫다고 떠나는 사람이 많다. 친척과의 관계도 그렇고 특히 일본인들은 시어머니의 간섭이 심하면 견딜 수가 없게 된다. 부부간 들이보다는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국인과 결혼을 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결혼문화도 결혼식 때도 ‘얼굴도장찍기’ 라는 것이 허용된다. 일본은 식장에 5~10분만 있다 갈 것이면 아예 안 가는 것이 낫다는 문화이다. 결혼식 초대장도 미리 나누어 주고 확실히 올 사람 자리만 준비해놓고 2시간 이상 예식을 진행한다. 한국인은 초대장을 안 받아도 가서 돈 내고, 사진 찍고, 바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일본의 경우 물론 부유한 가정도 많이 있겠지만, 결혼할 때까지 조금씩 돈을 모아서 결혼하고 둘이서 힘을 합쳐서 주거문제도 해결하는데 한국은 친인척 모두가 돈을 서로 거두어 집을 사주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류층 이상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그게 문화적으로 큰 차이인 것 같다.”

(30대 남성 T씨)

“한국인의 언어문화는 자기들이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것을 크게 상징화(뽕친다고 함) 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라가 작고,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이해가 된다. 또한 한국인들은 어깨가 부딪혀도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이 왜 그럴까? 라고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미안하게 생각은 하지만 일일이 말하지 않는구나 하고 점점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역시 한국생활에서 힘들었던 것은 규정이 느슨한 문화로 한국인들은 물을 안 지키는 것이다. 물이랄까 규칙에 대하여 일본인보다는 민감하지 않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칠게 운전하고, 그리고 매너가 안 좋다.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옛날과 비교하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요, 버스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지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본인으로서로는 절대로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남자와 여자가 느끼는 것에 차이는 있겠지만, 최근에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일반적으로 상품에 가격표가 붙여져 있지 않았다. 그리고 차 수리도 정기적으로 수리를 필요로 하는데, 일본인이라고 알게 되면 수리비를 비싸게 받는다. 이상하다 싶어서 한국인 친구를 데리고 가면 싸게 해주고. 이런 일은 자주 있는 일이다.”

이상과 같이 한일간의 문화적 차이는 일본인과 한국인이니까 서로 다르다는 이분적인 생각으로 강요하기 보다는 다양성을 서로 인정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어느 집단이나 사회이건 모두가 사회적 토대나 기본적 소양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그 차이를 극복하기는 힘들 것이다. 지구촌이라고 일컫는 글로벌시대에 국가 간에도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그대로 못 하는가? 난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 친구로서, 가족으로서, 개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처신인지 부단히 성찰해야한다. 한일간에도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소통과 존중의 정치가 필요한 시기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재한일본인 공동체의 디아스포라적 특징은 반일감정에 대한 염려, 정치적 민감성에 의한 불안, 문화적 이질감에 따른 공동체 생활 집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타 디아스포라민족과는 달리 재한 일계인 디아스포라 문화의 특징은 식민지경험과 역사적 인식차이에서 기인하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막연한’ 반일감정에 대한 재한일본인 디아스포라공동체의 지나친 자각 의식이 한국인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더 큰 디아스포라적 족쇄(Shackles)로 작용하고 있다는데 있다.

IV.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동부이촌동 일대에 일본인집거지(Japanese Community)가 형성되게 된 배경과 이들이 이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을 통해 재한일본인들의 디아스포라적(Diasporic) 특성을 고찰하고자했다.

21세기는 세계가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국제화)’가 되는 글로벌 다문화시대(Global Multi-culturalism)다. 2010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상시 거주하는 재한일본인 수가 3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재한일본인들에 대한 국내 연구는 ‘해방(1945년) 전 일본인의 거류지 정착과정’과 ‘해방 후 통일교 관련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저술이 주를 이룰 정도로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현대 재한일본인 단체’에 대한 연구는 “이주민공동체로서의 재한일본인 공동체 특성 분석: ‘서울재팬클럽’과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를 중심으로(한명진 2009)”가 유일할 정도로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 논문은 기존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그동안 국내외에서 진행된 재한일본인 연구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재한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그들의 디아스포라 문화(Diaspora Culture)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재한일본인의 디아스포라적 특성은 혈연적·문화적 동질성을 근거로 하는 민족공동체(Great Ethnic Community) 형성 배경, 거주국 내 소수민족그룹(Minority Ethnic Group)으로서의 이주자들의 적응(Adoption)과 차별(Discrimination)의 경험에 의한 독자적 민족정체성 형성과정, 집단적 이산과정에서 경험하는 상흔(Trauma) 및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에 대한 헌신과 충성(Loyalty) 등으로 개념화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재한 일본인 디아스포라적 특성은 동부이촌동 중심의 일본인공동체 형성배경, 서울재팬클럽(SJC) 형성 과정, 동부이촌동 재한

일본인 집거지 내 재한일본인의 이주와 적응과정에서 생겨난 의식형성 차원에서의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1970년대에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일대에 현대식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를 기점으로 동부이촌동에 부자들이 몰려들면서 이 지역이 대한민국 부촌의 아이콘(Icon)으로 떠오른다. 이에 앞서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의 상처를 빠르게 치유한 후 1960년대 저유가경제를 활용하여 중공업우선정책을 펼쳐 고도경제성장을 지속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으로 풍요로워진 일본인들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일본대사관 직원이나 상사 및 기업 임직원들이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활동하게 된다.

당시에 이러한 연유로 한국에서 근무하게 된 일본 대사관 및 지상사 주재원들이 교통이 편리하고 환경이 쾌적한 동부이촌동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일대에 ‘작은 일본’, 즉 ‘리틀도쿄(Little Tokyo, 일본인집거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후 1997년 1월에 서울 일본인회, 서울 일본상공회, JV(Joint Venture)회 등의 서울 주재 일본인 단체를 아우르는 연합체 형식의 서울재팬클럽(SJC)이 발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SJC(SEOUL JAPAN CLUB)은 재한일본인들의 대표적인 단체로서 한국에 진출하는 일본 기업이나 개인의 한국 정착과정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보와 자녀교육 프로그램, 취미생활과 동호회 참가 기회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한일본인들과의 심층면담 결과 재한일본인들의 디아스포라적 특성은 한국인들이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일감정(Anti-Japanese)에 대한 배타성, 한일역사에 대한 인식부족, 한국문화에 대한 이질감 등 이러한 요인들이 긍정적이든, 아니면 부정적이든 상호 작용하여 한국사회와 단절된 일본인 중심의 디아스포라적 공동체 성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밝혀낼 수 있었던 재한일본인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코헨(Cohen, 1969)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민족의 디아스포라와 달리

재한일본인 디아스포라는 식민지경험과 역사적 인식의 차이 때문에 한국인들이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막연한’ 반일감정에 의해 유발된 지나친 자각 의식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막연히 ‘고안된’ 재한일본인공동체의 집단적의식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반일감정보다 한국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민족정체성(Ethnic Identity)으로 굳어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한일본인들이 그들만의 민족공동체의 폐쇄적이고 고립된 디아스포라적 문화의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편견을 초월하는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폭넓은 교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조사대상자와 응답자들이 주로 1965년 이후 한국에 건너와 생활하기 시작한 재한일본인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연구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보다 많은 사례들을 수집하고 조사하는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아, “다문화가정지원정책의 성격.” 『교육전남』 제111호, 2008.
- 김석란, “재한일본인아내의 국적에 관한 연구-해방이전 결혼자를 중심으로-.” 『日語日文学』 第36輯, 2007.
- 김지영, 「조국」 문화로서의 「한류」 재일한국조선인의 「한류」 미디어 접촉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제41집, 2009.
- 김응렬, “재한일본인의 생활사.” 『한국학 연구』 1996.
- 박남수, “다문화 사회에 있어 시민적 자질의 육성: 사회과를 통한 다문화교육의 모색.” 『사회과교육』, 33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2000.
- 보건복지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사회통합지원 대책』, KDI경제정보센터, 2006. http://epic.kdi.re.kr/epic/epic_view.jsp?num=80376&menu=1.(검색일: 2012. 06. 16)
-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KDI 경제정보센터, 2008. http://epic.kdi.re.kr/epic/epic_view.jsp?num=97618&menu=1.(검색일: 2012. 06. 08)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2010. http://www.immigration.go.kr/HP/TIMM/imm_06/imm_2010_12.jsp.(검색일: 2012. 07. 12)
- 설동훈 외,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 2005.
- _____,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증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06.
- 송석원, “일본정부의 일계인 정책-JICA의 해외일계인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2009.
- 유진이·홍영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논문집』 제5권 제3호(통권13호), 2007.
- 윤인재, “2007년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계획.” 『교육마당』, 21(통권306호), 교육인적자원부, 2007.
- 이덕구, “일본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충남의 농촌지역(홍성, 예산, 청양)을 대상으로.” 『문화관광연구』 11권 2호, 2009.
- 이재분, “다문화가정자녀의 학교교육 현황과 과제: 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충북교육연구』 통권 제9호, 2008.
- 임영언, “일계인(日系人)디아스포라: 초민족공동체 형성과정 연구.” 『日本文化学報』 第46輯, 2010.
- 임영언, “일계인(日系人)디아스포라의 귀환과 브라질타운형성에 관한 연구: 군마젠 오이즈미초 일계브라질타운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16집 제4호(통권61호), 2011.

임영언, “일계인(日系人)디아스포라 브라질 이주사와 전시문화콘텐츠 고찰.” 『日本文化學報』 第50輯, 2011.

임영언, “재한일본인의 이주역사와 동부이촌동 일본인집거지 형성배경 고찰.” 2011년 12월 26일 『전남대학교세계한상문화연구단 공동학술회의 발표논문』, 2011.

조현미, “일본인 국제결혼여성의 혼성적 정체성.” 『일본어문학』 Vol.45, 일본어문학회, 2009.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에 관하여-‘재한 일본인妻’ 문제를 중심으로”, 2008, p.2.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lrguswkdrns&logNo=20052229670>(검색일: 2012. 07. 20).

金春男, “文化的背景に配慮した在韓・在日外国人高齢者の老後生活の支援：在韓日本人と在日コリアンのための老人ホームをとおして.” 『社會問題研究』 59卷, 2010.

伊藤考司, 『日本人花嫁の戦後 韓国・ナザレ園からの証言』、LYU工房、1996.

宋美虎·喜田寛, 『ナザレ園-金龍成先生との約束』 株式会社喜田寛総合研究所、1994.

総谷智雄, “在韓日本人妻の形成과 生活適応에 관한 研究.”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1994.

Barth, Fredrick, Introduction, in F. Barth(ed.), *Ethnic Groups Boundaries*. London: Allen & Unwin, 1969.

Cohen, Robin, *Global Diasporas: An introduction*. London: UCL Press, 1997.

Cohen, Abner, *Custom and Politics in Urban Afric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Marcus Banks, *Ethnicity: Anthropological Constructions*. New York: Routledge, 1996.

Safran, William, “Diasporas in modern societies: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in *Diaspora*, Vol.1, No.1, 1991.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on of the Place of Residence
among Japanese Residents in Korea and
the Diasporic Characteristics of Their Culture

Yim, Young-Eon(Chonnam University) · Heo, Song-Tae(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background of the collective dwelling of Japanese residents in Dongbu Ichon-dong and the process of their settlement in this area in an effort to shed light on the diasporic characteristics of Japanese residents in Korea, as there was a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Japanese residents in Korea since the normalization of Korea-Japan diplomatic relations in 1965. Therefore it's meant in this study to analyze existing literature to look into studies of Japanese residents in Korea, which were implemented in and outside our country, and an in-depth interview was held over the selected Japanese residents in Korea to determine their diasporic characteristics.

As a result of having an in-depth interview with the selected Japanese residents in Korea to determine their diasporic characteristics, it's found that they just built a Japan-oriented community which wasn't linked to Korean society due to their fear for possible anti-Japanese sentiment among Korean people, ignorance of the history of Korea and Japan, and misunderstanding of or prejudice against Korean culture. In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Japanese residents in Korea should try to have a correct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and accelerate their own exchange with Korean people to get rid of their closed, isolated diasporic characteristics.

Keywords : Diasporic Characteristics, Japanese Residents, Dongbu Ichon-dong, Anti-Japanese, Community, Korean Culture

투고일: 2012년 11월 01일, 심사일: 2012년 11월 04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11일